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및 교사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종단적 매개효과 분석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 Perceptions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 Democratic Attitude of Parenting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Teachers, and their Self-regulated Learning and Self-esteem

김현진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및 교사와의 관계가 자신의 자아존중감과 관련성을 가지는 과정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와 이러한 관계가 종단적 효과를 가지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이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 중에서 중학교 1학년 패널의 1차년도(2010년)와 3차년도(2012)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위 패널자료에서 사용한 동일한 측정도구들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는 동일 년도에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자아존중감 모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측하였고,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로 자아존중감을 간접적으로도 예측하였다. 한편,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였으나,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주적 양육태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2년 후 이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자아존중감을 직접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들이 지각한 1학년 시기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2년 후 그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증진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와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은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자아존중감의 증진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효과를 가지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Key word: 자기조절학습능력, 자아존중감, 민주적 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종단적 효과